

기획

이번 학기 아쉬운 행정 조치 … 소통 부재 해결해야

박혜림 기자 apricot12@knu.ac.kr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우리학교는 코로나19 대책반과 코로나19 종합상황실을 개설했다. 이에 지난 1월엔 서울 소재 대학 중 가장 빨리 개강 연기를 발표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학사 일정과 정책은 대부분 여기서 결정됐다. 빠른 정책 결정과 함께 코로나 예방과 방역에 초점을 두어 외국인 학생 수가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 정책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는 대책반 회의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학사 관련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학업에 직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학교 측은 대책반 회의에서는 유학생 입국 관련 문제, 격리 사항 등의 국가적 내용을 더 다루기 때문에 종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대신 학사 관련 사항은 종학, 미래혁신단과 함께 별도로 학생 소통 TF를 구성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서울캠 종학생회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부총장 주재 TF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며 "현재 학사교육, 안전대책 문제, 건의 등 학생과 관련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소통이 학교 정책에 실질적으로 잘 적용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3월 약속한 대면강의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대면강의 날짜를 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연장했다. 이에 지난 4월 서울캠퍼스(서울캠) 종학생회는 5월 4일을 기준점으로 경계 단계 이하로 격하되지 않을 시 '1학기 전면 비



서울캠 내 대면시험 조건을 추가해 달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장보경 기자)

대면 수업'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추가 연장은 교내 구성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교 측은 "대면 강의가 진정한 대학 수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대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라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5

월에 이르러서야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 확정'을 발표하며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난 일일뿐더러 학생들의 안전이 뒤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타 대학도 주시하며 일어나는 상황을 살피고 이에 세부지침을 정해서 공지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 전까지 학내 구성원들은 주거 문제나 수업 방식에 대해 혼란을 겪어야 했다.

기말시험 변경 시행 안내에 따르면 기말 시험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교강사의 재량에 따라 비대면도 허용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학교 홈페이지는 "성적평가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면 시험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부정행위 방지 및 공

정성 확보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다면 교강사의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허용한다"라고 공지했다. 서울캠 부총장실 백성선 행정실장은 "전공과 강의수업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동일한 지침을 내리는 것이 교수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시험 방식을 교강사 재량에 맡긴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학사지원처는 "언론 등을 통해, 타 대학의 비대면 평가에서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 처리된 사례 및 여러 대학에서 발생한 학생간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했으리라 생각된다"며 "학생들에게 중요한 성적 산출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학생들 스스로가 제일 많이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학생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대면시험에 대한 교내 구성원들의 두려움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6월 9일 기준, 국제캠퍼스에서 대면시험을 시행하지 않는 강좌 수는 45.4%, 서울캠퍼

스는 59.3%에 달한다. 이는 교내 구성원과 학교 측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것은 안전성을 위해 대면 원칙을 따르지 않은 교강사들에게 형평성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기말시험 방식을 결정하는 데 종학과 논란을 이어간 것도 갈등의 한 축이 됐다. 서울캠 종학은 지난달 13일 기말 대면 원칙에 대한 입장문 전달을 시작으로 수차례 '대면시험 원칙 철회'를 요청했다. 지난 2일엔 코로나19 재확산 위험과 학생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캠 확대운영위원회의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학이 성명문을 전달하고자 종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부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의 면담도 거절됐다. 이에 종학은 지난 3일 본관 항의 방문을 벌였고 당일 오후 부총장과 면담이 진행돼 기말고사 대면 원칙 철회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대면 원칙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5월 21일에는 양 캠퍼스 종학이 함께 기말고사 대면 원칙에 대한 공개요청서를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논의는 6월 5일 다시 진행됐지만 기말고사 대면 원칙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종학은 "더 이상의 원칙 변경 요구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양보하는 대신 대면시험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갈무리했다.

이에 최 회장은 "이전부터 면담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하던 것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며 "앞으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학교만의 문제

가 아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갈등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실제 비대면 시험을 시행한 인하대학교에서는 지난 3~4월 치러진 온라인 시험에서 의과대학생들의 집단 커닝이 발생했다. 반대로 5월 말 일부 과목에서 대면방식의 중간고사를 치른 가천대학교(가천대) 글로벌캠퍼스에서는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가천대는 실시간 화상 수업 및 대면 강의 계획을 전면 취소했으며, 교내 접촉자 20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런 논란들에 "대면, 비대면 중 뭐가 맞는지가 아니라 현재 있는 평가방식 자체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사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라며 "앞에 말한 새로운 교육 평가방식이나 비대면을 통한 실험·실습·실기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행사나 자치회비 운영에 관한 안전 등의 대책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도 코로나19 사태가 개강 직전에 확산되면서 이를 미리 대처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도 얘기했다. 그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세세한 규칙까지 잘 조정해서 공지가 일을 앞둔 직전에 올라오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바람을 표했다.

한편, 2020학년도 하계 계절학기는 공지된 바와 같이 대부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사지원처는 "코로나19 사태가 아직은 예측불허인 상황이다"라며 "2학기 강좌 운영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하므로 코로나19 대응 TF 등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학주보 69기 수습기자 모집

• 모집 대상 : 우리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중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자

• 전형 일정

- 서류 전형 (지원서 작성) : 6월 15일 월요일 ~ 6월 19일 금요일
- 면접 일시 : 서류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일정 조율
- 합격자 통보 : 개별 통보

• 전형 방법

- 1차 : 서류전형 (입사 지원서 및 필기시험 작성 후 제출)
- 2차 : 개별 면접 진행

• 접수방법

- 홈페이지(media.knu.ac.kr/khunews) 팝업창에서 입사 지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업로드 제출

• 주요 업무

- 학내 뉴스 아이템 발제
- 주 1회(월) 주간회의 필참
- 발제 아이템 기획 및 취재
- 온라인, 지면 기사 작성

• 활동 혜택

- 장학금 지급 (최대 전액)
- 원고료 지급
- 현직 언론인 특강
- 해외취재 기회 제공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

- 대학주보 인스타그램 DM (khunews_jubo)

- 연락처 : 010-4004-0653 편집장 이후승, 연락은 문자로 부탁드립니다.

- 전화 : 02-961-0095 (서울캠퍼스 편집실), 031-201-3232 (국제캠퍼스 편집실)